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의
주체사상으로
튼튼히 무장하자!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14호 [루게 제22966호] 주제 99 (2010)년 1월 14일 (목요일)

전당, 전군, 전민이 위대한
김정일동지의 선군혁명
령도를 높이 받들어나가자!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원군사업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일에서 모범을 보인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를 보내시었다

우리 당과 우리 인민의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인민군대원호사업에 성실성을 다하고 사회와 집단을 위해 좋은 일을 한 일군들과 근로자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보내시었다.

당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 평양역과 통일고기공공공장 닭가공공장 일군들과 종업원들, 함흥시 흥덕구역 가내축산관리위원회 녀맹초급단체위원장 리혜성, 청진시 신양구역 신진동 녀맹초급단체위원장 윤명희, 황주군 판천리 녀맹초급단체위원장 김연애, 녀맹원들인 갑산군사회양관리소 산하단위책임자 김혜숙, 해산시사회양관리소 로동자 전순금, 운산군 읍 157인민반 안병숙, 윤진군 대연리 오원호, 개성시 승전동 엄순녀, 함흥시 흥남구역 유형2동 리문숙, 고원

군 읍 225인민반 장명옥은 우리 혁명의 제일기둥이며 주력군인 인민군대가 있어 사회주의조국이 수호되고 가정의 행복도 담보된다는것을 명심하고 원군사업에 온갖 지성을 다하였다.

경애하는 김정일장군님께서 지어주신 새로운 혁명적대교조의 불길높이 강철중산투정으로 들끓고있는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만경대구역 칠골2유치원 원장 장성관과 종업원들, 천리마구역상업관리소 로동자 배춘경, 천리마구역국도교보호관리부 로동자 조춘복, 천리마구역인민병원 로동자 전길남, 만경대구역 칠골2동 1인민반 영예군인 김철, 칠골2동 4인민반 서재철, 평천구역 해운1동 33인민반 박순옥과 그의 가정, 천리마구역 원정동 77인민반 전경삼,

향구역 하대두동 박종실과 그의 가정을 비롯한 근로자들이 몸심량면으로 지원하였다.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부원 최정애, 로동자 김봉원, 김윤미, 보산제철소 로동자 로명식, 오현선도 나라의 강철기둥을 굳건히 다지는데 이바지할 애국의 마음안고 많은 일을 잘하면서 철강제증산에 도움을 주는 일을 찾아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보내신 감사를 격정속에 받아안은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앞으로 원군사업과 사회와 집단을 위한 좋은 일을 더 많이 하여 선군조건의 자랑인 군민대단결을 철통같이 다져 대강대국건설대전의 승리의 날을 앞당겨갈 혁명적열정에 넘쳐있다.

본사기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565호

주제 99 (2010)년 1월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상을 임명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안동촌동지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상으로 임명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제564호

주제 99 (2010)년 1월 13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상을 해임함에 대하여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한다. 강승수동지를 다른 직무에 조동됨에 따라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문화상에서 해임한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정 령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더 높이, 더 빨리!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쫓기모임 진행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의 현지말씀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제령광산 종업원쫓기모임이 11일에 진행되었다.

김관희 황해남도당위원회 책임서기, 광산종업원들이 모임에 참가하였다.

모임에서는 광산초급당비서 정복식의 보고에 이어 지배인 최남선, 분초급당비서 리우근, 증대장 리장순이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광산을 찾으신 위대한 김정일동지께서 해방후 새 조국건설시기부터 오늘에 이르는 기간 불타는 애국의 일념을 안고 질풍은 쇄돌을 제철소들에 제에 모내줌으로써 나라의 경제발전에 크게 기여하고있는 광산들을 높이 평가하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증산의 불길 세계에 타오르

는 광산들을 돌아보시면서 기술장비상태와 생산정형을 구체적으로 로해하신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광산이 1년도 안되는 짧은 기간에 현대적으로 전면전대 대해 커다란 만족을 표시하시었다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철생산을 정상화하는데서 기본은 철광석생산을 앞세우는 것이며 이를 위해 다량락광, 다량저리할에 대한 당의 방침을 철저히 관철하여야 한다고 하시면서 쇄돌제강장이 풍부한 승리광산을 전망성 있게 꾸리는 문제를 비롯하여 광산이 나아가 길을 환히 밝혀주시는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새해 정초부터 북방의 추위

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최첨단의 선군혁명령도를 충직하게 받들어나가는 참다운 혁명정사가 될데 대하여 강조하였다.

일군들과 광부들은 생산활성화의 토대가 튼튼히 마련되는데 맞게 쇄돌생산을 높은 수준에서 정상화하기 위하여 헌신분투하여야 할것이라고 그들은 말하였다.

그들은 착정기와 굴착기, 자동차들을 비롯한 제철 및 운반설비들에 대한 설비관리를 잘하고 막도쳐리를 확고히 앞세우며 승리광산을 전망성있게 꾸리기 위한 사업을 힘있게 밀고나감으로써 올해 쇄돌생산물표를 앞당겨 점령할데 대하여 언급하였다.

광산의 당조직들이 대중의 양양된 열의에 맞게 조직적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리며 영양제식당, 광부원, 정양소들을 잘 운영하는 등 후방사업에 큰 힘을 넣음에 대하여 그들은 말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강성대국건설의 전초령, 개척자답게 쇄돌생산에서 비약을 일켜 당창건 65돐전으로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며 뜻깊은 2010년을 우리 조국혁명에서 가장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조선중앙통신】

경애하는 장군님의 믿음과 믿음을 깊이 간직하고 강성대국건설의 전초령, 개척자답게 쇄돌생산에서 비약을 일켜 당창건 65돐전으로 년간 인민경제계획을 완수하며 뜻깊은 2010년을 우리 조국혁명에서 가장 자랑찬 승리의 해로 빛내는데 적극 이바지해야 할것이라고 강조하였다.

모임에서는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우리는 편지가 채택되었다.

장군님따라 폭풍쳐달리자

◇ 지금 최첨단설 건설자들은 위대한 장군님께서 보내주신 특별감사문을 피뎌는 가슴마다에 받아안고 새로운 천리마속도, 《희천속도》로 더욱 질풍같이 달려나갈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새해 정초 명하 30℃를 오르내리는 북방의 강추위로 마다하지 않으시고 또다시 최첨단설 건설장르에 눈보라강풍군을 헤쳐가신 위대한 장군님, 지난해에도 전국의 200여 개 단위들을 현지지도하시며 장창 10여만리의 험한 길을 걸으신 장군님의 애국헌신의 강행군로고를 우리 어찌 수자르려만 다 헤아릴 수 있겠는가.

과연 력사의 그 어느 갈피에 우리의 장군님과 같이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생활향상을 위하여 허투를 백날, 천날맛잡이로 빨려산신강풍군을 단행한 그런 위인이 있었는가.

◇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길에서 꽃피는 것이 우리 인민의 리상이며 행복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는 오늘날의 기세를 조금도 늦추지 말고 신심뜨들이 강성대국의 령마루를 향하여 강행군길을 계속 다그쳐야 합니다.》

경애하는 장군님께서서는 언제나 일군들에게 자신께서는 취임없이 이어가는 선군의 길에서 힘이 부칠 때가 한두번이 아니지만 사회주의를 수호하고 나라와 민족의 운명을 지키기 위하여 순간도 멈춰설수 없다고, 인민들은 나의 강군을 넘어서지 않으려라든 편지를 써주셨다.

위기를 간절히 바라고있지만 내가 잠시라도 뒤를 조국의 전진이 그만둘 때면 된다고 생각하니 쉬고있어도 쉴수가 없다고 뜨겁게 말하고 있다.

정령 경애하는 장군님은 인민에 대한 열렬한 사랑으로 심장을 불태우시며 초인간적인 강행군길에서 인민의 모든 리상을 실현해나가는 위대한 혁명가, 철세의 애국자, 인민의 아버지이시다.

◇ 우리는 누구나 경애하는 장군님의 강행군길에 심장의 박동을 맞추며 장군님따라 폭풍쳐나아가야 한다.

김철의 로동계급은 전국의 근로자들에게 보내는 편지에서 초강대국건설의 신들레를 후삼사이드 없이 세계의 험한 장정에 나서신 위대한 장군님의 거룩한 모습을 우리르면서 심장의 피가 끓지 않는다면 어찌 장군님의 아들딸들이라고 말할수 있겠는가 하면서 애국충정을 절절히 호소하였다.

경애하는 장군님의 리상은 우리 인민의 행복이다. 위대한 장군님을 아버지로 높이 모신 우리들의 리상은 마땅히 장군님께 높은 실적으로 더 큰 기쁨과 만족을 드리는것으로 되어야 한다. 최첨단설 건설자처럼, 김철과 성상의 로동계급처럼 우리 장군님의 대고조사를 일심전력을 다하여 받드는 사람이 장군님의 참된 동지이다.

모두가 위대한 장군님의 강행군길에 심장의 박동과 전진의 순간도 멈춰설수 없도록 인민생활향상을 위한 대고조속도를 최대로 높여나가자!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을 적극 지원

평양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새해농사차비에 펼쳐나선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을 성실성으로 지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농업혁명을 하기 위하여서는 농촌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고 국가적보장사업을 잘하여야 합니다.》

평양시에서는 새해농사차비에 펼쳐나선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농업근로자들을 적극 지원하기 위한 조직사업을 짜고 들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대동강과수종합농장으로 내려간 시민민원회의 해당 부서일군들은 땅의 지력을 높이려면 어떤 문제를 풀어야 하는가를 구체적으로 알아보고 구역, 군들과 기관, 기업소들에 농장에 보내줄 질

좋은 거름을 마련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시민민원회의 일군들이 이신작적의 모범을 보이며 아배단위들에서 많은 거름을 생산하도록 이끌었다.

이밖에 진행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대한 지원사업에서는 동대원구역, 대동강구역, 락양구역, 형제산구역, 사동구역안의 기업소, 공장들에서도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많은 거름을 보내주었다.

1월 13일, 평양시에서는 2000여의 질풍은 거름을 수백대의 화물자동차에 실어 대동강과수종합농장에 보내주었다.

평양시안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의 지원사업에 고무된 대동강과수종합농장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올해에 기여이 훌륭한 과업적황을 마련할 불타는 열의에 넘쳐있다.

특파기자 최재남

강계청년발전소에서 강계청년발전소의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은 공동사업에서 제시된 전투적업무를 높이 받들고 새해 첫 전투부러 생산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 많은 전력을 보내주고있다.

발전소당조직에서는 공동사업의 사상과 정신을 생산자대중속에 깊이 심어주고 그들의 혁명적열의를 불러일으키기 위한 정치사업을 진공적으로 벌려나가고있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발전소 참모부에서는 겨울철조건에 맞게 전력생산을 정상화하기 위한 경제조직사업을 잘하고 있고 한방울의 물도 허실없이 전력생산에 적극 리용하기 위한 대책들을 세워나가고있다. 발전소에서는 내부예비를 동원하여 많은 량의 질풍은 전기기술을 만들어 생산에 적극 리용하는 한편 인제와 도중취수구에 대한 판리를 잘하여 물의 허실을 막고 물을 모두 잡아 리용하기 위한

대책을 적극적으로 세워나갔다. 그리하여 지난해보다 더 많은 량의 물을 확보함으로써 겨울철에도 전력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하였다.

1호, 2호발전소의 당원들과 로동자들은 발전기, 차단기, 변압기 등 설비들에 대한 점검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있다.

3호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도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큰 힘을 넣어 매일 전력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이곳 전력생산자들은 설비들이 얼지 않게 미리 보온대책을 철저히 세워놓고 우리 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영웅발전기를 비롯한 모든 설비들의 정상운영을 모은되하게 보장해나가고있다.

발전소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생산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공로혁

전력생산성과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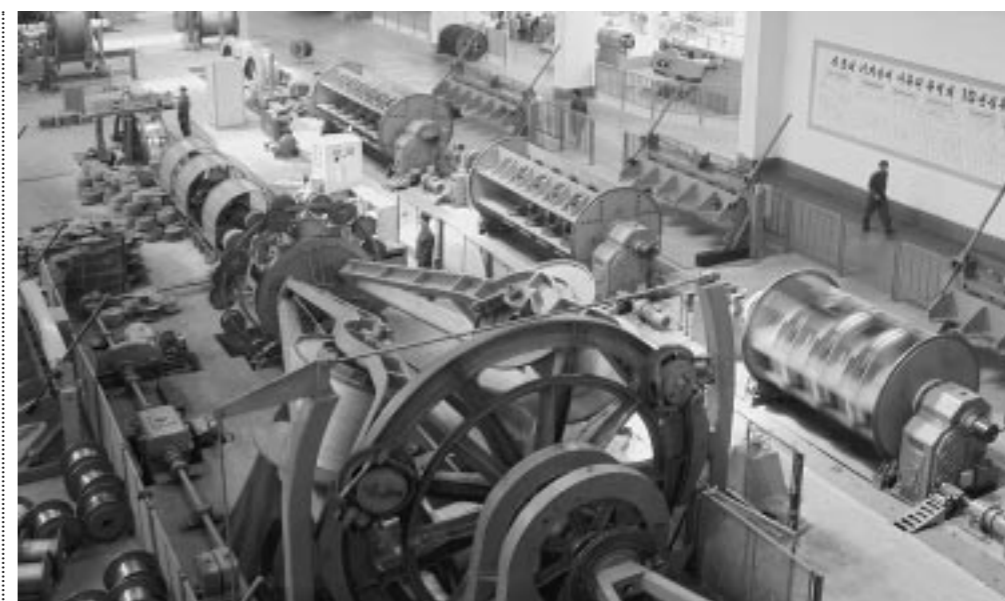
대력을 적극적으로 세워나갔다. 그리하여 지난해보다 더 많은 량의 물을 확보함으로써 겨울철에도 전력생산을 정상화할수 있게 하였다.

1호, 2호발전소의 당원들과 로동자들은 발전기, 차단기, 변압기 등 설비들에 대한 점검을 정상적으로 진행하면서 책임성과 역할을 높이고있다.

3호발전소의 전력생산자들도 설비관리, 기술관리에 큰 힘을 넣어 매일 전력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하고있다. 이곳 전력생산자들은 설비들이 얼지 않게 미리 보온대책을 철저히 세워놓고 우리 당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영웅발전기를 비롯한 모든 설비들의 정상운영을 모은되하게 보장해나가고있다.

발전소의 일군들과 당원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생산성과는 계속 확대되고있다.

특파기자 공로혁



혁명적대교조의 불길높이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키고 있다. -평양 3 2 6 전선공장에서- 본사기자 김정민 찍음

공동시설의 사상과 정신에 맞게 올해전투작전을 잘 하자

뚜렷한 사업설계에 모를 박고

모란봉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올해 총공세에 펼쳐나선 모란봉구역당위원회 일군들의 잡드라가 대단히 좋다. 올해전투를 성과적으로 보장하기 위한 첫 공정이라고 할수 있는 공동시설을 학습하는 품이 다르다. 공동시설의 사상과 정신, 체계와 내용을 파악하는데 그치지 않고 개별적인 표현들에 이르기까지 밑줄을 그어가면서 진지하게 파고들고있다. 여기서 주목되는것은 공동시설학습이 그 관철을 위한 전투목표들을 현실적이면서도 동원적으로 세우는데 기본을 두고 끊임없이 심화되고있는것이다.

이것은 공동시설학습을 통하여 해결하려는 문제를 올바르게 설정하고 사업을 설계해나가는 구역당위원회 책임일군들의 혁신적이며 창조적인 사업태도와 관련되어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학습은 어디까지나 실천에 머물러있지 않는 실천을 습득하고 혁명의 량식을 섭취하기 위한 학습은 학습으로 되어야 합니다.》

구역당위원회의 모든 부서들에서 공동시설학습이 드세게 일고있던 며칠전 어느날이였다.

청사의 계단을 오르던 구역당위원회 책임일군은 옷속에서 내려오면서 두 일군이 나누는 이야기를 듣게 되였다.

《...당조직들과 당일군들은 후방사업에 큰 힘을 넣어 근로자들의 혁명적열의와 전투적사기를 더욱 북돋아주어야 한다.》

《공동시설의 어느 부분이나 정말 환하지만, 그 자체로 단위들에게 나가면 일을 본래있게 제정수 있겠소.》

공동시설을 문답의 방법으로 학습하는 그들의 모습은 전반적인 부서들에서의 드높은 학습열기를 잘 보여주고있었다. 그것은 물론 좋은 일이었다.

하지만 책임일군은 공동시설 학습이 매 부서, 매 일군들의 구체적인 실천과 결부되어 진행되도록 적극 추동해야겠다는 생각을 계속스럽게 가지게 되였다.

《우리 당이 학습을 그토록 중시하는것은 어떤 사업에서나

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공동시설의 전투적과업관철에서 한몫 단단히 할수 있겠는가 하시는 학습이 지향되었다.

결과 부서들에서는 잠재력을 남김없이 동원하면서 직능상요구에 맞게 공동시설과업관철을 위한 전투목표들을 하나하나 현실적이면서도 동원적으로 세워나가게 되였다.

서한동무를 비롯한 구역당위원회 선진선동부 일군들이 서로의 창조적체계를 적극 합쳐가면서 올해전투목표를 뚜렷이 세운 실례는 그것을 생동하게 말해주고있다.

지난해에 항일유격대식으로 배낭을 메고 전투장들에 들어가 화신시경계선동을 힘있게 벌려 구역안의 모든 일터가 혁신, 대비약의 불도끼로 들쭉개 한 그들은 올해에는 그 성과에 기초하여 더 높은 목표를 제기하면서 토론투과 논쟁의 방법으로 공동시설학습을 끊임없이 심화시켜나갔다. 그 과정에 혁명적대고조의 불길드높이 인민생활향상에서 결정적인

현실과 결부하여 깊이 있게

대동군당위원회에서

희망찬 미래에 대한 커다란 포부와 락관으로 청년군민을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에 힘있게 학습하도록 하였다. 그리고 올해의 첫 《학습강사의 날》, 《세로비서의 날》, 《선동원의 날》 운영을 공동시설학습 지도를 실속있게 하도록 하는 데 지향하였다.

강성대국건설의 승리의 날이 멀지 않았다. 커다란 신심과 자부심에 넘쳐 새해 첫 전투부터 잡드라를 단단히 하고 나선 대동군당위원회 일군들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모든 담원들과 근로자들이 담보사실을 빼놓지않고 있어야 그들이 당의 사상과 의도를 잘 알수 있습니다.》

공동시설을 학습하는 목적은 한해동안 틀어쥐고나가야 할 당의 로선과 정책을 잘 알자는 것이요 결국은 당의 의도에 맞게 자기 단위의 사업을 더욱 개선하기 위해서이다.

새해전투의 첫시작을 공동시설학습으로 정한 대동군당위원회에서는 군안의 모든 일군들과 근로자들이 공동시설학습을 깊이있게 학습하도록 하는 데 선차적인 힘을 넣었다.

군당위원회에서는 공동시설이 실현 《대동신문》과 공동시설학습에 도움이 되는 자료

안변군 화산농장 초급당위원회에서

새해농사차비에 펼쳐나선 안변군 화산농장의 당원들과 농업근로자들의 전투장을 들여다 보면 특징적인것이 있다.

그것은 아침 모임시간과 작업의 설하는 물론 작업의 전과정이 그대로 공동시설 학습과정으로 일관되고있는 것이다.

여기에는 공동시설학습이 실속있게 진행되도록 하기 위해 전투현장을 그대로 학습장으로 전환시켜 온 농장별에 학습열풍이 일며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진지한 노력이 깃들여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혁명하는 사람에 있어서 학습은 첫째가는 의무이며 생활의 한 부분입니다.》

새해 공동시설을 크나큰 적성속에 접한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은 그 사상과 정신으로 대중을 든든히 무장시키기 위한 준비사업을 방법있게 진행하였다.

우선 공동시설의 체계와 내용들을 더욱 깊이 새겨주기 위해 직관선동에 큰 힘을 넣으면서 구두선동, 예술선동을 비롯한 모든 선동사업을 공동시설의 사상과 정신으로 일관시켰다.

초급당일군들자신이 먼저 공동시설의 기본내용을 깊이 파악하고 그에 기초하여 직관선동활동의 생동성과 호소성을 높이고자 하는 사업을 짜고들었다. 초급당위원회는 한결을 더 틀어잡고 작업과정에 공동시설학습이 중단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사업을 면밀하게 짜

실효를 거둔 예술선동공연

봉창지구당관공 초급당위원회 일군들의 사업에서

머칠전 봉창지구당관공 노동자문화회관에서는 새해 공동시설학습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판공기동예술선동대원들이 준비한 예술선동공연이 진행되었다. 출연자들과 호흡을 함께 하며 지난해를 돌이켜보는 당원들과 종업원들의 열광마디에는 올해공동시설에서 제시된 전투적과업들 결사관철을 어머니당에 드리는 자랑찬 로력적선물을 안고 10월의 대추전망에 맺듯이 열렬히 환영하는 기쁨이 넘쳐나고있다.

공동시설학습을 위한 예술선동공연이 실효를 거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간부들과 당원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잘 알아야 수령님과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내세워도 심신을 가지고 사업을 대담하게 벌려나갈수 있습니다.》

새해공동시설이 나왔을 때였다.

《어떻게 하면 당원들과 종업원들속에 공동시설에 당겨넣을 것인가?》

《간부들과 당원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잘 알아야 수령님과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내세워도 심신을 가지고 사업을 대담하게 벌려나갈수 있습니다.》

새해공동시설이 나왔을 때였다.

《어떻게 하면 당원들과 종업원들속에 공동시설에 당겨넣을 것인가?》

《간부들과 당원들이 수령님의 교시와 당정책을 잘 알아야 수령님과 당의 의도대로 사고하고 행동할수 있으며 어떤 어렵고 복잡한 과업이 내세워도 심신을 가지고 사업을 대담하게 벌려나갈수 있습니다.》

새해공동시설이 나왔을 때였다.

현실과 결부하여 깊이 있게

우리가 들고나가는 할 조구가 울려나오는 속에 흥진군에 부르는 힘찬 노래로 막을 연 공연은 첫시작부터 탄부들의 심금을 울려주었다.

특히 2인제당과 3인제당은 당일일군들이 직접 출연한것으로 하여 더욱 인기를 끌었다. 비록 20분 지나나만 공연이었지만 대중마디에 공동시설의 사상과 정신이 뚜렷이 반영된것으로 하여 사람들에게 주는 여운이 컸다.

전투적이며 기동적인 예술선동활동으로 온관공 공동시설학습열풍을 일으킨 초급당위원회는 이것이 더욱 고조되도록 조직적사업을 짜고들었다. 이에 따라 기동예술선동대원들은 강들을 순회하며 일경 전시간을 리용하여 청년학교와 교양실에서도 공연을 하고 전투가 벌어지는 현장에서도 진행하였다.

공동시설학습을 들리는 현장에서 화신식으로 조직행하니 좋은 점이 한두가지가 아니었다. 작업분담이 서로 다르고 널려져 일하는 조건에서 때와 장소에 구애없이 짧은 시간에 많은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여 집중적으로 진행할수 있는 집중적인 학습방법이었다.

관공의 구체적설정에 알맞는 방법을 택하여 당원들과 탄부들속에 공동시설학습을 심화시켜나가고있는 초급당위원회일군들의 학습지도 경험은 시사해 주는 점이 많다.

본사기자 손영희

여러가지 형식과 방법으로

웅진군 송월리당위원회에서

웅진군 송월리당위원회에서는 농장원들속에 당창건 65돐을 맞은 뜻깊은 올해에 다시한번 강령과 농업에 박차를 가하여 인민생활에서 결정적전환을 이룩할데 대한 공동시설의 정신을 깊이 심어주기 위한 학습을 실속있게 진행 하고있다.

리당위원회에서는 일군들부

러가 공동시설의 원문내용을 완전히 파악하는데 기초하여 농장원들속에 공동시설에 담긴 심오한 사상을 확고히 인식시키기 위한 여러가지 형식의 학습을 심화시켜나가고 있다.

농장원들은 공동시설학습을 통하여 올해의 추풍전선을 뚜렷이 담담자라는 자각을 새겨

고있고있다.

김일 권



공동시설의 사상과 정신을 깊이 있게 학습하는 일군들

우리 수뇌부의 절대적권위와 사회주의조국의 존엄을 건드리는 자들을 추호도 용서치 않을것이다

북남군사실무회담 우리측 대표단 단장 남측에 통지문

【평양 1월 13일발 조선중앙통신】 력사적인 6. 15 공동선언발표 10돐과 고려민주헌법공화국 창립 40주년 기념 30돐이 되는 올해에 민족의 화해와 단합을 실현하고 북남관계를 개선하려는 겨레의 지향과 의지는 온 삼천리강토에 차넘치고있다.

그러나 남조선당국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밑에 평화변영과 자주통일의 새시대를 열어나가려는 겨레의 거세한 열망에 전면도전하여 우리를 헐뜯고 동족사이의 불신과 대립을 고취하는 반공화국비파살포

행위를 광분하고있다.

이와 관련하여 13일 북남군사실무회담 우리측 대표단 단장은 남측당국에 다음과 같은 내용의 통지문을 보내었다.

우리측은 지난해 10월 31일 남로 확대보도있는 남측당국의 반공화국비파살포위위 대하여 지적하고 필요한 수습책을 강구하지 않는다면 북남관계에 예상외의 부정적후파가 초래될수 있다는것을 엄숙히 경고한바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측당국은 년말년시를 제기로 우리측 강화군일대와 장풍군일대, 금

발송

와 《판계판공》 등지를 기구로 리용하여 비파를 살포하였다.

특히 극우보수단체들로 구성된 《대북전단보내기 국민련합》은 1월 1일에도 경기도 파주시 립민각에서 반공파동에 들며 수습명칭의 비파를 우리측으로 날려보내는 판동을 부렸다.

새해부터부터 북남관계를 또 다시 판공과 질시, 대결과 충돌로 반목시켜가는 반민족적이며 반평화적이며 반통일적인 대결판도는 우리 근대와 인민으로 하여금 치맛은 격분을 금치 못하게 하고있다.

우리측은 앞에서는 《대화

공동시설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너맹원들의 결기모임

올해공동시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너맹원들의 결기모임이 대동군에서 진행되었다.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김중원동지와 관계부문의 일군들, 너맹일군들, 평양시내 너맹원들이 모임에 참가 하였다.

모임에서는 로성실 너맹중앙위원회 위원장의 보고에 이어 평양시너맹위원회 위원장 김은희, 사동구역너맹위원회 위원장 최복실, 서성구역 상봉동 너맹원 윤경희가 토론하였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온 나라 너맹원들이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 지피주신 새해전투의 불길드높이 필승의 신심과 락관에 넘쳐 공동시설에 제시된 전투적과업을 관철하기 위한 총진군길에 펼쳐나선데 대하여 말하였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너스들은 혁명과 건설을 떠맡고나가는 힘있는 력량입니다.》

보고자와 토론자들은 영광스러운 우리 당창건 65돐을 맞는 올해는 혁명적대고조의

목표를 높이 세우고 전투적으로

전환을 일으킬 목표명에 땅의 지력을 높이기 위한 투쟁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농사차비를 잘하는것은 한해농사의 성과를 좌우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도당위원회의 지도밑에 도에서는 당창건 65돐이 되는 올해에 알뜰생산에서 지난해 11월 오

활 해 남 도 에 서

국형농장농장을 찾으면서 제시하신 전투적과업을 높이 받들고 각종 운반수단을 동원하여 지난해부터 품질에 미치지 않는것을 되풀이하여 실어내리는 것과 함께 로력조직을 짜고들어 거름생산에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다.

신천, 연안, 제명, 배천, 은봉, 강령군에서는 거름생산전투가 힘있게 벌어지고있다. 이 군들의 일군들은 생산현장

너 맹 원 들 의 결 기 모 임

요구와 민족의 지향에 역행하는 대역력라는것을 시인하고 이러한 행위를 강행한 극우보수단체를 즉시 해산하고 주범들을 엄벌에 처하는 조치를 취해야 한다.

6. 15통일선의 전진을 가로막으려는 동족대립의 망신자, 반통일분자들의 책동이 아무리 악랄하다 해도 자주통일과 민족번영을 이룩해나가려는 겨레의 지향과 의지는 절대로 꺾을수 없다.

력사에 도전해나서는 내외통일선의 전면은 민족의 존엄한 수호를 철저히 지켜야 한다.

도농경리위원회를 비롯한 도급기관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자제로 생산한 질 좋은 거름을 자동차와 손달구지들에 싣고 시안의 혁명별로 향하였다. 특히 이의 책임일군들이 대중의 앙상에서 《나를 따라 앞으로!》의 구령을 치며 농촌에 많은 거름을 운반함으로써 혁명적대고조의 분위기를 한층 두터우게 하였다.

헤수시의 일군들과 기관, 기업소로동자, 사무원들, 시안의 동, 인민반원들등 거름생산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섰다.

특파기자 리승철

본사기자 황철웅 특음

본사기자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려야 한다

올해 우리 겨레앞에는 새해공동사업의 호소파라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물리치며 거족적인 통일대행진을 다그쳐나감으로써 2010년을 자주통일의 새 국면을 여는 해로 빛나게 장식하여야 할 영예로운 과업이 나서고있다. 올해 조국통일운동의 근본적인 성과를 이룩하는데서 중요한 것은 남조선인민들이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는것이다.

올해공동사업에서는 남조선에서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의 불길은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고 강조하였다. 이것은 현 남조선정세와 6.15통일시대의 요구로부터 출발한 정당한 호소이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라도 민족자주정신과 조국통일일이 날로 높아지고있습니다.》

올해는 미국이 남조선을 군사적으로 감점한지 65년이 되는 해이다. 침략적인 세계제국연합을 실현하기 위해 《해방자》의 랄을 쓰고 남조선을 감점한 미국때문에 우리 민족은 반세기동안 남도 북도의 고통을 겪고있으며 통일위업실현이 지체되고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조선당국은 미국과의 《동맹강화》를 최우선과제로 내세우고 그 무슨 《21세기전략동맹》을 운운하며 그 실현에 적극 매달림으로써 남조선은 미국에 더욱더 예속시키고있다. 지난 남조선 《대통령선거》에서 음모적 방법으로 보수세력을 집권시킨 미국은 그에 의거하여 남조선에 대한 정치적, 군사적지배를 더욱 강화하면서 사회의 자주적, 민주적발전은 가로막고 조국통일위업을 해치고있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군사적강점과 지배를 끝까지 없애려는 남녘겨레의 소원인 자주, 민주, 통일을 실현할수 없다.

남조선강점 미군은 결코 《해방자》, 《보호자》가 아니라 민족분열의 장본인이며 온갖 불행의 화근이다. 남조선인민들은 미국의 침략적본성과 지배의 야망을 각성하고 반미자주투쟁을 더욱 파국히 벌려나가기로 하였다.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정치적지배와 간섭, 남도 심화되는 경제적, 문화적침략을 철저히 반대배격하여 투쟁하는 길에 민족적존엄과 자주권이 있다. 남조선강점 미제침략군은 전쟁의 근원인 동시에 인민들이 당하는 온갖 재난의 화근이다. 미군철수가 없는 남조선인민들의 자주권도 없다. 미제침략군은 남조선에서 내몰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반미투쟁들을 적극 전개하며 핵전쟁의 위협을 몰아오는 미국의 부침합동군사연습과 무력강소동을 단죄규탄하는 반전평화투쟁을 더욱 강화높게 벌려나가기로 하였다.

사회주의화하는 오늘 남조선인민들 앞에 내서는 절박한 과제이다. 반파쇼민주화투쟁은 남조선에서 파쇼독재제를 청산하고 사회의 민주화와 조국통일운동을 추동하기 위한 정의의 애국투쟁이다.

남녘인민들의 신념의 목소리

경에 하 는 김정일장군님의 민족 자주사상의 결정체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남녘인민들의 가슴마다에 6.15 통일시대의 리념으로 깊이 자리잡고있다. 남조선의 자유기구가 황만옥은 자기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6.15시대는 《우리 민족끼리》를 기본리념으로 하는 자주통일시대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는 조국통일문제와 우리 민족이 책임지고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 나가야 하는 우리 민족내부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6.15 통일시대에 서부터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천명하시었다. 그리고 이 정신에 따라 남과 북, 해외의 은 겨레가 화해와 단합을, 공동행동을 이룩할수 있는 민족공조의 길을 열어 놓으시었다.》

얼마전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토론회에서 6.15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해 논증하면서 《6.15공동선언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어디에 살건 믿고 지지할수 있는 리념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대한 남녘인민들의

인론인 심진수는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이 있어 로동자, 농민, 청년학생, 지식인들을 비롯한 각계층이 역사의 주체임을 자각하고 자주통일의 실현을 위한 투쟁에 더욱 힘차게 떨쳐나설수 있게 되었다고 긍정에 넘쳐 말하였다. 남조선의 한 통일운동단체는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린 글에서 자주통일운동이 거스를수 없는 대세가 되고있는 현실을 《우리 민족끼리》가 6.15 통일시대의 유일무이한 리념임을 확증해주고있다 하면서 《이 모든것은 겨레의 통일리념을 풀어주시려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강철같은 의지가 있었기에 가능하였다.》고 강조하였다. 재야인사 립성수는 대구에서 진행된 어느 한 시국토론회에서 력대로 남조선집권자들이 미군의 영주부대를 해결해줬지만 《김정일장군님께는 통일운동을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실현할것을 주장한다.》고 하면서 경에는는 장군님의 민족자주사상을 열렬히 찬양하였다. 평주의 교수들은 《통일을 절절히 바라는 우리 민족을 통일의 주체로 보시는 김정일국방위원장의 민족자주사상은 남과 북, 해외의 은 겨레를 무한히 격동시키고 있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민족의 분열사를 끝장내고 통일의 비명을 이룩하시기 위해 바쳐가시는 김정일장군님의 로고와 실천은 이 땅우에 확고한 의지를 맺고 있다.》고 격찬하였다.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힘차게 전진하는 시대의 흐름을 마려하신 경에하는 장군님에 대한 남녘인민들의

6.15공동선언발표후 남조선에서는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인민들의 지향과 의지가 더욱 높아졌다. 그러나 남조선의 현 보수집권세력은 날로 높아지는 인민들의 자주, 민주, 통일지향을 억누르면서 친미사대와 파쇼독재, 반통일대결책동에 악랄하게 매달리고있다. 현실은 남조선인민들이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대중적투쟁을 더욱 파국히 벌려나갈것을 절실하게 요구하고있다. 남조선에서 반미자주투쟁의 불길은 세차게 지펴올려야 하는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자주성은 나라와 민족의 제일생명이다. 민족이 자주권을 빼앗기고 다른 나라에 예속되면 인민들은 노예의 처지를 면할수 없으며 그 어떤 념원도 실현할수 없다. 그것은 미국의 군사적강점과 지배에 있는 남조선의 현실이 잘 보여주고있다.

반미자주투쟁은 남조선에 대한 미국의 강점과 지배를 끝장내고 사회의 자주적발전을 이룩하는것을 목표로 한다. 반미자주투쟁은 자주, 민주, 통일운동의 중심고리이다.

남조선각계 가 민심을 외면하면서 반역행위에 매달리는 집권세력을 강하게 비난, 규탄하고있다. 알리진바와 같이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31일 야당들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로조관계법정안》에 대해서도 남조선각계와 로조단체들은 《로조화동합의》를 노린 악법》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데 이어 1월 1일에는 로동자들의 권리를 말살하는 《로조관계법정안》을 강압통과시켰다.

분노한 야당의원들은 《한나라당》의 《불법예산날치기 규탄대회》를 열고 《《한나라당》이 세태파산을 도적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규탄하면서 의회를 변경해 이루어진 《예산안》의 날치기 처리는 《국회법》상무효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비상국민행동》도 《세태파당의》 《세태파산안》 단죄투쟁을 규탄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회의를 변경해 《세태파산안》을 단독처리한것은 무효

민들은 6.15공동선언의 발표이후 《우리 민족끼리》리념에 기초하여 동족과 반대연합을 실현하고 협력과 교류를 확대하면서 통일운동의 훌륭한 성과를 이룩하였다. 이 경험과 단합된 힘에 기초하여 북남공동선언들을 고수리행하기 위한 투쟁의 불길은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한다. 현시기 조국통일운동의 강화발전에서 주되는 장애물은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이다. 남조선당국은 올해에도 《원칙외수》의 간판밑에 핵문제를 걸고 북남관계개선과 조국통일운동에 난관을 조성하려 하고있다. 남조선당국의 시대착오적인 대결정책을 그대로 두고서는 북남관계가 개선될수 없고 조국통일운동도 활력있게 전진할수 없다. 남조선의 각계 통일운동단체들과 인민들은 6.15공동선언발표 10돐과 고려민주주의주의혁명군정령일주년 30돐이 되는 올해에 남조선당국의 반공화국대결정책을 철회시키기 위한 투쟁을 더욱 힘차게 벌려나가기로 하였다. 이와 함께 북남관계개선을 지지하고 민족적화해와 협력을 부진시키고자 시키는데 모를 학교 조국통일운동을 강화해나가야 한다.

단결은 힘이고 승리이다. 남조선인민들은 조국통일의 기치아래 하나로 뭉쳐 내외분열주의세력의 반통일대결책동을 단죄규탄하고 짓부시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투쟁을 활발히 벌리며 북과 해외의 동포들과 굳게 련대하여 6.15공동선언과 10.4선언을 옹호고수하고 리행하기 위한 애국투쟁을 더욱 힘있게 벌려나가기로 하였다.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의 성과여부는 남조선인민들이 어떻게 분반하여 일떠서는가에 달려있다. 올해공동사업은 남조선의 각계층 인민들을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신수준의 애국투쟁으로 부르치고있다. 남조선인민들은 공동사업의 호소파라 거족적으로 떨쳐나 자주, 민주, 통일을 위한 투쟁을 더욱 세차게 지펴올려야 할것이다. 송영석

《우리 민족끼리》는 천 년의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의 신념의 목소리

뜨거운 경도의 정은 그대로 자주통일의 길에 모든것을 다 바쳐갈 불라는 열의로 분출되고있다. 부산의 한 주민은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아래 통일을 위해서는 얼마나 놀라운 진전이 일어났는가.》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우리 민족끼리》야말로 온 겨레가 변함없이 틀어쥐고 나아가 할 최고의 통일헌칙. 만능의 통일보검이며 현시대의 기본리념이다. 생각할수록 가슴이 벅차오른다. 통일을 이루자면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만을 따라야 한다는 확신이 날이 갈수록 강해진다.》

울산의 한 로동자는 동료들에게 《김정일장군님을 모시어 보면 김정일장군님의 령도만을 따라야 한다는 확신이 날이 갈수록 강해진다.》

대전과 포항의 주민들도 《민족자주의 힘으로 통일성업은 이룩하자. 이는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천명하신대로 우리 민족끼리 힘을 합쳐 외세의 지배와 간섭을 끝장내고 조국통일을 이룩하자.》, 《《우리 모두 김정일령도자님을 받들어 공동선리행위를 위한 투쟁에 파국히 나서자.》고 호소하였다.

남조선인민들속에서 힘차게 울려나오는 이러한 목소리에는 《우리 민족끼리》의 기치를 변함없이 높이 추켜들고 온 민족의 단합된 힘으로 그들의 자주통일을 이룩하려는 그들의 단결과 의지가 그대로 맥박치고있다. 김현철

통일애국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가기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성명 발표

재중조선인총연합회가 5일 성명을 발표하여 뜻깊은 올해에 통일애국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켜나갈것을 호소하였다.

성명은 새해공동사업을 받아안은 재중조선인총연합회 일군들과 전체 재중조선인들의 가슴가슴은 조국인민들의 장엄한 총진군에 보조를 맞추어 올해 통일애국사업에서 새로운 전환을 일으킬 불라는 기세에 충만되어있다고 밝혔다.

지난 해 위대한 김정일장군님께서 새해벽두부터 한해가 다 저물어가는

교포노동사상을 높이 받들고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조직을 더욱 튼튼히 꾸리며 모든 재중동포들을 강성대국건설을 위한 애국운동에 한사람같이 떨쳐나서도록 할것이다.

우리들은 6.15공동선언발표 10돐과 고려민주주의주의혁명군정령일주년 30돐이 되는 뜻깊은 올해에 해외의 모든 통일운동단체들과의 련대연합을 더욱 강화하여 반통일세력의 온갖 도전을 짓부시고 격사적인 북남공동선언들을 견결히 고수, 리행해나갈것이다.

성명은 민주로총이 당국의 탄압에 굴복없이 6.15공동선언, 10.4선언리행을 위한 협력, 교류사업을 계속 추진하며 산업별, 지역별 통일운동을 확대하여 민족의 화해와 단합, 공동의 번영을 위한 단결투쟁을 강화해나갈것이라고 밝혔다.

본사기자

전횡과 기만놀음에 대한 민심의 규탄

라고 밝히고 민중대수가 반대하는 《4대강에산안》집행을 강행하려는 시도를 철저히 라고 주장하였다.

《한나라당》이 강압통과시킨 《로조관계법정안》에 대해서도 남조선각계와 로조단체들은 《로조화동합의》를 노린 악법》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데 이어 1월 1일에는 로동자들의 권리를 말살하는 《로조관계법정안》을 강압통과시켰다.

분노한 야당의원들은 《한나라당》의 《불법예산날치기 규탄대회》를 열고 《《한나라당》이 세태파산을 도적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규탄하면서 의회를 변경해 이루어진 《예산안》의 날치기 처리는 《국회법》상무효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비상국민행동》도 《세태파당의》 《세태파산안》 단죄투쟁을 규탄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회의를 변경해 《세태파산안》을 단독처리한것은 무효

《우리 민족끼리》는 천 년의 통일을 염원하는 민족의 신념의 목소리

경에 하 는 김정일장군님의 민족 자주사상의 결정체인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은 남녘인민들의 가슴마다에 6.15 통일시대의 리념으로 깊이 자리잡고있다. 남조선의 자유기구가 황만옥은 자기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썼다.

《6.15시대는 《우리 민족끼리》를 기본리념으로 하는 자주통일시대이다. 김정일국방위원장님께서 는 조국통일문제와 우리 민족이 책임지고 우리 민족끼리 해결해 나가야 하는 우리 민족내부의 문제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6.15 통일시대에 서부터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을 천명하시었다. 그리고 이 정신에 따라 남과 북, 해외의 은 겨레가 화해와 단합을, 공동행동을 이룩할수 있는 민족공조의 길을 열어 놓으시었다.》

얼마전 서울의 한 대학교수는 토론회에서 6.15공동선언의 정당성과 생활력에 대해 논증하면서 《6.15공동선언은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그가 누구든지, 어디에 살건 믿고 지지할수 있는 리념이다. 《우리 민족끼리》의 리념에 대한 남녘인민들의

민심의 규탄

《민생교도 시달리는 서민들의 생활을 나아지게 하겠다》는 계획은 전혀 발전할수 없고 일차리만, 사교육비출이 등 민생대책의 구체적인 결여되어있다.》고 하면서 《그동안 해오던 정책을 라려면한것에는 아무것도 없는 유풍한 연설》이라고 비난하였다.

민주로총당과 진보연당 대변인들은 《갈등과 대립을 초래한 국정지조를 반복했다》는 것으로 일방독주와 불통의 기운만 느꼈다.》, 《외형적인 《상장》만 부각시켰을뿐 민중의 삶과 민주주의에 대한 문제는 빠져있다.》고 하면서 강하게 비판했다.

어른들은 새해에 남조선인민들에게 아무런 희망도 주지 못하고 오히려 오만과 독선을 부리며 민주주의의 리념의 생존권을 무장히 유린하는 현 집권세력의 처사가 사회의 대립과 갈등을 더욱 심화시키게 될것이라고 하였다.

본사기자 김철호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사회주의는 인민의 확원, 자본주의는 근로대중의 무덤

행복의 보금자리, 불행의 지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이 사회의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얼마전 우리가 만수대거리를 찾았을 때였다. 8호층에 있는 한 집문을 두드러니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는 녀인이 반겨맞아주었다. 방금집에서 무엇을 쓰고있었는지 어른은 원주필이 쥐어주었다.

생활상인의 최상급으로 갖추어진 선진시대 살림집의 본보기이며 표준이라 할수 있는 현대적인 살림집은 돌아볼수록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식구수가 몇인가고 묻는 우리에게 정보선업지국에서 로동자로 일한다는 세대주 김봉철동무가 대답하였다.

《안해와 저 그리고 군사부 무중인 아들과 딸 이렇게 넷입니다. 지금은 덩실한 이 집에서 우리 둘만 살고있습니다. 우리같은 로동자부부가 이런 화려한 집에서 살고있는것이 아직도 꿈만 같아서 방금전에 도 초소의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고있던 참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책상우에 놓여있는 하얀 종이머 너인의 손에 쥐여져있는 원주필에 새삼스럽게 눈길을 돌리게 되었다. 전하고있어도 풀이 없는 행복의 이야기를 적고 또 적는

민심은 외면하면서 반역행위에 매달리는 집권세력을 강하게 비난, 규탄하고있다. 알리진바와 같이 《한나라당》은 지난해 12월 31일 야당들의 한결같은 반대에도 불구하고 《로조관계법정안》에 대해서도 남조선각계와 로조단체들은 《로조화동합의》를 노린 악법》을 《국회》에서 날치기로 통과시킨데 이어 1월 1일에는 로동자들의 권리를 말살하는 《로조관계법정안》을 강압통과시켰다.

분노한 야당의원들은 《한나라당》의 《불법예산날치기 규탄대회》를 열고 《《한나라당》이 세태파산을 도적질하는 만행을 저질렀다.》고 규탄하면서 의회를 변경해 이루어진 《예산안》의 날치기 처리는 《국회법》상무효라고 주장했다.

시민단체인 《비상국민행동》도 《세태파당의》 《세태파산안》 단죄투쟁을 규탄하여 기자회견을 열고 《한나라당이 회의를 변경해 《세태파산안》을 단독처리한것은 무효

유용한 속심이 숨어있을줄은 누구도 알수 없었다. 황지주님에게는 영희똥배의 아들놈이 하나 있었는데 매일 잘 치며며 빈민들 놀아대기만 하는데도 웬일인지 날이 갈수록 얼굴이 풍채가 창백해지며 새들새를 좋아하고있었다. 종다는 약 다 지어 먹고 무당을 불러다 웃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어 웃음을 잃었다. 영희는 안경쟁이때문의사에게 산 사람의 피가 있어야 한다는 《취방》을 알게 되었다.

그제서 영희는 심부름을 시키는척 하면서 영순이를 빼들려고 영희에게서 피를 뽑아낼 공중이를 꾸민것이다. 이것을 알게 된 영순이는 동생에게 밝까지 먹여주었다는 지주너편에 고맙게 생각하며 60리나 되는 먼길을 쉬지도 않고 달려다싶이 하면서 시달렸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당에 들어서 비스듬히 엮려진 문틈으로 방안을 들여다보던 영순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행복의 보금자리, 불행의 지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이 사회의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얼마전 우리가 만수대거리를 찾았을 때였다. 8호층에 있는 한 집문을 두드러니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는 녀인이 반겨맞아주었다. 방금집에서 무엇을 쓰고있었는지 어른은 원주필이 쥐어주었다.

생활상인의 최상급으로 갖추어진 선진시대 살림집의 본보기이며 표준이라 할수 있는 현대적인 살림집은 돌아볼수록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식구수가 몇인가고 묻는 우리에게 정보선업지국에서 로동자로 일한다는 세대주 김봉철동무가 대답하였다.

《안해와 저 그리고 군사부 무중인 아들과 딸 이렇게 넷입니다. 지금은 덩실한 이 집에서 우리 둘만 살고있습니다. 우리같은 로동자부부가 이런 화려한 집에서 살고있는것이 아직도 꿈만 같아서 방금전에 도 초소의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고있던 참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책상우에 놓여있는 하얀 종이머 너인의 손에 쥐여져있는 원주필에 새삼스럽게 눈길을 돌리게 되었다. 전하고있어도 풀이 없는 행복의 이야기를 적고 또 적는

행복의 보금자리, 불행의 지옥

이들, 어찌 이들만이라. 만수대거리의 살림집들과 대동강과수종향의 새 살림집들에서도 사람들은 밤이 지세도록 사연있는 편지들을 쓰고 또 쓰리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젊은 사람이 살아가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보금자리이다. 하기에 예로부터 설움 중에 큰 설움은 집없는 설움이라 하는 말도 전해져오고있는지 모른다.

나라에서 무상으로 안겨준 따뜻한 보금자리,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의 터전인데 부러움 모르는 우리 인민들.

하지만 자본주의나라에서는 지금 이 시각에도 집없는 설움과 고통에 두들겨 맞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추위에 떨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 집 한칸 마련할수 없어 이루 말할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집없는 세대는 무려 700여만세대에 달하고있다. 이중에 시 68만세대는 세상살이를 할 돈마저 없어 폭방, 판자집, 움막 등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으며 이런 거처지마저도 견뎌 없어 거리에서 방황하며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서울에만도 수천명에 달한다.

남조선로동자들의 대다수가 생활이식을 허하니 다리떨이나 오물장군에 비닐, 가마니, 지합 등으로 《집》을 짓고 한

못하고있을 때 일본에서는 집 없는 사람들을 대한 폭행건수가 날마다 늘어나고있다. 언제인가 일본의 어느 한 곳에서 집이 없어 떠돌이생활을 하던 남자가 시내의 중학생과 고등학교학생들의 폭행으로 죽었으며 또 다른 곳에서는 같은 처지에 있던 한 사람이 중학생 3명에게 폭행당하여 죽었다.

사회와 버림을 받은 집없는 사람들이 살해되는 현상을 놓고 한 시민단체는 해당 기관에 보낸 청원서에서 《로상생활자 대한 차별과 편견》을 시정할것을 요구하며 《세계개발》을 지원할것을 요구하며 《일부 두드러진 어린이들의 사건》으로 끝나고있다고 그 심각성에 대해 우려를 표시하고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혁명전열교양과 함께 계급교양을 더욱 강화하여야 하겠습니다.》

해방전 안락국의 어느 한 마을의 황가성을 가진 지주놈의 집에는 부모들이 세상을 떠나자마자 빗대신 꼴라와 머슴살이를 하는 영순이와 영희라는 어린애 두명이 있었다. 황지주씨는 영순이를 빼들려고 영희에게서 피를 뽑아낼 공중이를 꾸민것이다. 이것을 알게 된 영순이는 동생에게 밝까지 먹여주었다는 지주너편에 고맙게 생각하며 60리나 되는 먼길을 쉬지도 않고 달려다싶이 하면서 시달렸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당에 들어서 비스듬히 엮려진 문틈으로 방안을 들여다보던 영순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행복의 보금자리, 불행의 지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이 사회의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얼마전 우리가 만수대거리를 찾았을 때였다. 8호층에 있는 한 집문을 두드러니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는 녀인이 반겨맞아주었다. 방금집에서 무엇을 쓰고있었는지 어른은 원주필이 쥐어주었다.

생활상인의 최상급으로 갖추어진 선진시대 살림집의 본보기이며 표준이라 할수 있는 현대적인 살림집은 돌아볼수록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식구수가 몇인가고 묻는 우리에게 정보선업지국에서 로동자로 일한다는 세대주 김봉철동무가 대답하였다.

《안해와 저 그리고 군사부 무중인 아들과 딸 이렇게 넷입니다. 지금은 덩실한 이 집에서 우리 둘만 살고있습니다. 우리같은 로동자부부가 이런 화려한 집에서 살고있는것이 아직도 꿈만 같아서 방금전에 도 초소의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고있던 참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책상우에 놓여있는 하얀 종이머 너인의 손에 쥐여져있는 원주필에 새삼스럽게 눈길을 돌리게 되었다. 전하고있어도 풀이 없는 행복의 이야기를 적고 또 적는

이들, 어찌 이들만이라. 만수대거리의 살림집들과 대동강과수종향의 새 살림집들에서도 사람들은 밤이 지세도록 사연있는 편지들을 쓰고 또 쓰리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젊은 사람이 살아가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보금자리이다. 하기에 예로부터 설움 중에 큰 설움은 집없는 설움이라 하는 말도 전해져오고있는지 모른다.

나라에서 무상으로 안겨준 따뜻한 보금자리,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의 터전인데 부러움 모르는 우리 인민들.

하지만 자본주의나라에서는 지금 이 시각에도 집없는 설움과 고통에 두들겨 맞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추위에 떨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 집 한칸 마련할수 없어 이루 말할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집없는 세대는 무려 700여만세대에 달하고있다. 이중에 시 68만세대는 세상살이를 할 돈마저 없어 폭방, 판자집, 움막 등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으며 이런 거처지마저도 견뎌 없어 거리에서 방황하며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서울에만도 수천명에 달한다.

남조선로동자들의 대다수가 생활이식을 허하니 다리떨이나 오물장군에 비닐, 가마니, 지합 등으로 《집》을 짓고 한

유용한 속심이 숨어있을줄은 누구도 알수 없었다. 황지주님에게는 영희똥배의 아들놈이 하나 있었는데 매일 잘 치며며 빈민들 놀아대기만 하는데도 웬일인지 날이 갈수록 얼굴이 풍채가 창백해지며 새들새를 좋아하고있었다. 종다는 약 다 지어 먹고 무당을 불러다 웃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어 웃음을 잃었다. 영희는 안경쟁이때문의사에게 산 사람의 피가 있어야 한다는 《취방》을 알게 되었다.

그제서 영희는 심부름을 시키는척 하면서 영순이를 빼들려고 영희에게서 피를 뽑아낼 공중이를 꾸민것이다. 이것을 알게 된 영순이는 동생에게 밝까지 먹여주었다는 지주너편에 고맙게 생각하며 60리나 되는 먼길을 쉬지도 않고 달려다싶이 하면서 시달렸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당에 들어서 비스듬히 엮려진 문틈으로 방안을 들여다보던 영순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행복의 보금자리, 불행의 지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이 사회의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얼마전 우리가 만수대거리를 찾았을 때였다. 8호층에 있는 한 집문을 두드러니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는 녀인이 반겨맞아주었다. 방금집에서 무엇을 쓰고있었는지 어른은 원주필이 쥐어주었다.

생활상인의 최상급으로 갖추어진 선진시대 살림집의 본보기이며 표준이라 할수 있는 현대적인 살림집은 돌아볼수록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식구수가 몇인가고 묻는 우리에게 정보선업지국에서 로동자로 일한다는 세대주 김봉철동무가 대답하였다.

《안해와 저 그리고 군사부 무중인 아들과 딸 이렇게 넷입니다. 지금은 덩실한 이 집에서 우리 둘만 살고있습니다. 우리같은 로동자부부가 이런 화려한 집에서 살고있는것이 아직도 꿈만 같아서 방금전에 도 초소의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고있던 참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책상우에 놓여있는 하얀 종이머 너인의 손에 쥐여져있는 원주필에 새삼스럽게 눈길을 돌리게 되었다. 전하고있어도 풀이 없는 행복의 이야기를 적고 또 적는

이들, 어찌 이들만이라. 만수대거리의 살림집들과 대동강과수종향의 새 살림집들에서도 사람들은 밤이 지세도록 사연있는 편지들을 쓰고 또 쓰리라고 생각하니 가슴이 뭉클해졌다.

젊은 사람이 살아가는데서 없어서는 안될 귀중한 보금자리이다. 하기에 예로부터 설움 중에 큰 설움은 집없는 설움이라 하는 말도 전해져오고있는지 모른다.

나라에서 무상으로 안겨준 따뜻한 보금자리, 행복하고 안정된 생활의 터전인데 부러움 모르는 우리 인민들.

하지만 자본주의나라에서는 지금 이 시각에도 집없는 설움과 고통에 두들겨 맞는 사람들이 눈물을 흘리며 추위에 떨고 있다.

오늘 남조선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제 집 한칸 마련할수 없어 이루 말할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있다.

자료에 의하면 남조선에서 집없는 세대는 무려 700여만세대에 달하고있다. 이중에 시 68만세대는 세상살이를 할 돈마저 없어 폭방, 판자집, 움막 등에서 죽지 못해 살아가고 있으며 이런 거처지마저도 견뎌 없어 거리에서 방황하며 밤을 보내는 사람들이 서울에만도 수천명에 달한다.

남조선로동자들의 대다수가 생활이식을 허하니 다리떨이나 오물장군에 비닐, 가마니, 지합 등으로 《집》을 짓고 한

유용한 속심이 숨어있을줄은 누구도 알수 없었다. 황지주님에게는 영희똥배의 아들놈이 하나 있었는데 매일 잘 치며며 빈민들 놀아대기만 하는데도 웬일인지 날이 갈수록 얼굴이 풍채가 창백해지며 새들새를 좋아하고있었다. 종다는 약 다 지어 먹고 무당을 불러다 웃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어 웃음을 잃었다. 영희는 안경쟁이때문의사에게 산 사람의 피가 있어야 한다는 《취방》을 알게 되었다.

그제서 영희는 심부름을 시키는척 하면서 영순이를 빼들려고 영희에게서 피를 뽑아낼 공중이를 꾸민것이다. 이것을 알게 된 영순이는 동생에게 밝까지 먹여주었다는 지주너편에 고맙게 생각하며 60리나 되는 먼길을 쉬지도 않고 달려다싶이 하면서 시달렸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당에 들어서 비스듬히 엮려진 문틈으로 방안을 들여다보던 영순

투철한 계급의식을 지니고 사회주의진지를 철벽으로!

행복의 보금자리, 불행의 지옥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나라 사회주의제도는 인민대중이 사회의 모든것의 주인으로 되고있으며 사회의 모든것이 인민대중을 위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얼마전 우리가 만수대거리를 찾았을 때였다. 8호층에 있는 한 집문을 두드러니 얼굴에 웃음을 띠고 있는 녀인이 반겨맞아주었다. 방금집에서 무엇을 쓰고있었는지 어른은 원주필이 쥐어주었다.

생활상인의 최상급으로 갖추어진 선진시대 살림집의 본보기이며 표준이라 할수 있는 현대적인 살림집은 돌아볼수록 감탄을 불러일으켰다. 식구수가 몇인가고 묻는 우리에게 정보선업지국에서 로동자로 일한다는 세대주 김봉철동무가 대답하였다.

《안해와 저 그리고 군사부 무중인 아들과 딸 이렇게 넷입니다. 지금은 덩실한 이 집에서 우리 둘만 살고있습니다. 우리같은 로동자부부가 이런 화려한 집에서 살고있는것이 아직도 꿈만 같아서 방금전에 도 초소의 자식들에게 편지를 쓰고있던 참이었습니다.》

그제서야 우리는 책상우에 놓여있는 하얀 종이머 너인의 손에 쥐여져있는 원주필에 새삼스럽게 눈길을 돌리게 되었다. 전하고있어도 풀이 없는 행복의 이야기를 적고 또 적는



우리 인민의 철천지원수 미제에 대한 중요심으로 가슴 불태우고있다. —중앙계급교양반에서— 본사기자 리명 일 찍음

유용한 속심이 숨어있을줄은 누구도 알수 없었다. 황지주님에게는 영희똥배의 아들놈이 하나 있었는데 매일 잘 치며며 빈민들 놀아대기만 하는데도 웬일인지 날이 갈수록 얼굴이 풍채가 창백해지며 새들새를 좋아하고있었다. 종다는 약 다 지어 먹고 무당을 불러다 웃도 해보았지만 소용이 없어 웃음을 잃었다. 영희는 안경쟁이때문의사에게 산 사람의 피가 있어야 한다는 《취방》을 알게 되었다.

그제서 영희는 심부름을 시키는척 하면서 영순이를 빼들려고 영희에게서 피를 뽑아낼 공중이를 꾸민것이다. 이것을 알게 된 영순이는 동생에게 밝까지 먹여주었다는 지주너편에 고맙게 생각하며 60리나 되는 먼길을 쉬지도 않고 달려다싶이 하면서 시달렸다.

가쁜 숨을 몰아쉬며 마당에 들어서 비스듬히 엮려진 문틈으로 방안을 들여다보던 영순

